

해비타트 주택 입주자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s' Neighborhood in the Habitat Housing

한주연* 김선중**
Han, Joo Yeon Kim, Sun Jo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sidents' Neighborhood in the Habitat Housing. It is also aimed to promote the community and community sense. Questionary methods and Direct interview were used for the survey of residents in the Habitat Housing. SPSS 10.0 program use for a statistical analysis. Most of the low-income bracket residential district has few public spaces. Habitat residential areas also have difficulties in taking various spaces because of the small scale and few people. According to the answer to the questions about Habitat residential problems, many people need public spaces. Consequently, multipurpose spaces must be made for the Habitat residents' neighborhood and their good lives.

Keywords : 해비타트, 이웃관계, 공유공간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해비타트 주택 건설이 해마다 증가하고, 주택 단지를 이루게 되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해비타트 주택에 입주한 저소득층 거주자들의 이전주택유형은 단독주택에서 사글세로 거주한 경우가 많아 공동체생활이라는 새로운 주거형태에 적응하기 어렵고, 입주자들의 공동체의식 또한 부족하며,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관리체계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입주자간의 공동체의식과 이웃관계도 매우 중요하다(전은배, 1995). 아산 화합의 마을의 한 입주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National Affairs, 2001.8.22).

본 연구는 해비타트 주택 입주자들이 단지

「내집마련」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비타트 주택 입주자들은 저소득 소외계층으로서 입주 후 새 직장을 구하거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느라 바빠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저소득층은 생계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이웃관계를 통해 새로운 직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며, 또한 맞벌이 부부가 많아 자녀양육이나 탁아문제, 방과 후 지도문제 등 생활상의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공동체생활을 통해 원활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내 공동체가 형성되어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입주자들끼리 진정한 이웃사촌이 되어주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이웃관계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 1) 해비타트 주택 입주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택특성을 파악한다.
- 2) 입주자들의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각 마을별 건축적 특성과 공유공간·시설의 현황을 파악한다.

* 정희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 3)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웃간의 교류정도”, “이웃관계”, “이웃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알아본다.
- 4) 이웃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공간 요구에 대해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국내에 지어진 해비타트 주택 입주자 중에서 입주한지 1년 이상 경과되어 공동체의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10세대 이상의 마을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전국 7개 지역 8개 마을을 최종 선정하고 95세대를 조사하였다. 각 마을별 세대수와 조사 대상수는 <표 1>과 같다.

표 2. 조사대상 지역 및 세대수

지역	아산	태백		광양	경산	진주	의정부	군산	계
		삼수	장성						
전체	88	14	12	32	12	16	17	12	203
조사	45	7	6	15	5	7	6	4	95

2.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먼저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협조요청을 하고, 각 지회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거쳐,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하였다.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조사대상 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사진촬영을 실시하였고,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와 면접을 겸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지회 간사 8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한 면접조사도 병행하였다.

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조사방법은 직접면접을 겸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입주자의 일반적인 특성, 주택특성, 이웃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SPSS 10.0 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사용하여 각 단지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단지 입주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65사례(69.1%)로 높게 나타났고, 가족수는 4명이 41사례(43.2%), 생활주기는 골고루 분포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초등교육기가 31사례(33.0%)로 가장 많았다. 남편과 부인의 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았는데, 남편은 40대가 46사례(55.4%), 부인은 40대가 42사례(46.7%)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연령과 기타의 연령은 중복응답 처리하였는데 자녀의 연령은 총 응답수 197사례 중에서 초등교육기 70사례(36.5%), 기타의 연령은 총 응답수 13사례 중에서 노년기가 5사례(38.5%)였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47사례(56.0%), 부인의 학력은 고졸이 59사례(65.6%)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운전종사자와 자영업이 각각 19사례(22.4%), 부인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7사례(51.6%)로 월등히 많았다. 월수입은 50~100만원이 34사례(43.0%)로 가장 많았고, 월수입의 평균은 134.1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월생활비는 60~100만원이 38사례(50.7%)로 가장 많았고, 월생활비의 평균은 97.91만원이었다.

2. 조사대상 가구의 주택특성

1) 이전주택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이전주택특성에서는 이전주택의 유형, 이전에 살던 거주지, 응답자의 고향, 해비타트 주택에 입주하기까지의 이사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이전주택유형은 단독주택에 사글세나 전세로 살았던 경우가 43사례(45.3%)로 가장 높았고, 이전에 살던 거주지와 응답자의 고향은 각각 군·읍·면·리가 41사례(43.2%), 57사례(60.0%)로 높게 나타났다. 해비타트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의 이사횟수를 살펴보면 평균 7.77회 이사하였고, 5번 이하가 43사례(45.7%)로 가장 높았다.

2) 현주택 특성

거주기간은 조사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주한 지 1년 된 세대가 48사례(50.5%)로 가장 높

표 2. 마을내 공유공간

	아산	태백		광양	경산	진주	의정부	군산
		삼수	장성					
회의실	○	○	○	○		○		
노인정								
산책로	○			○				
보육시설	교회 내							
관리사무소	○		○			○		
독서실/도서실	○			○				
다목적교육공간	○			○				
교회	○					△		
주차장	○	○	○	○	○	○	○	○
간단한 운동공간	○	○	○	○	○	○	○	○
휴게공간(벤치 등)	○		○	○		△		
녹지공간	○	○	○	○	○	○	○	
어린이놀이터	○							
복도나 계단실	○	○	○	○	○	○	○	○
마을 주 출입구	○	○	○	○	○	○	○	○
기타	마을회관 디지털방 자재창고	공동부엌 공동창고 자재창고		마을회관				

표 3. 이웃관계

	아산	태백		광양	경산	진주	의정부	군산	계	
		삼수	장성							
이웃만족	불만족	4(4.3)	-	1(1.1)	-	-	-	-	5(5.3)	
	보통	30(31.9)	3(3.2)	7(7.4)	4(4.3)	2(2.1)	5(5.3)	1(1.1)	52(55.3)	
	만족	10(10.6)	4(4.3)	6(6.4)	7(7.4)	1(1.1)	5(5.3)	1(1.1)	37(39.4)	
	계	44(46.8)	7(7.4)	6(6.4)	15(16.0)	5(5.3)	7(7.4)	6(6.4)	4(4.3)	94(100.0)
	평균				2.34					
생활시간	5시간이하	1(1.1)	-	-	-	-	-	-	1(1.1)	
	6~10시간	5(5.3)	1(1.1)	-	3(3.2)	1(1.1)	-	2(2.1)	1(1.1)	13(13.7)
	11~15시간	27(28.4)	3(3.2)	1(1.1)	6(6.3)	1(1.1)	3(3.2)	3(3.2)	-	44(46.3)
	16~20시간	1(1.1)	-	4(4.2)	4(4.2)	-	1(1.1)	-	-	10(10.5)
	21~24시간	11(11.6)	3(3.2)	1(1.1)	2(2.1)	3(3.2)	3(3.2)	1(1.1)	3(3.2)	27(28.4)
계	45(47.4)	7(7.4)	6(6.3)	15(15.8)	5(5.3)	7(7.4)	6(6.3)	4(4.2)	95(100.0)	
만나는횟수	거의만나지않는다	3(3.2)	1(1.1)	-	1(1.1)	-	-	-	-	5(5.3)
	한달에 한번	3(3.2)	-	-	2(2.1)	-	-	-	1(1.1)	6(6.3)
	일주일에 1번	7(7.4)	-	-	1(1.1)	1(1.1)	-	1(1.1)	1(1.1)	11(11.6)
	일주일에 2~3번	4(4.2)	2(2.1)	2(2.1)	1(1.1)	1(1.1)	1(1.1)	4(4.2)	-	15(15.8)
	거의 매일	28(29.5)	4(4.2)	4(4.2)	10(10.5)	3(3.2)	6(6.3)	1(1.1)	2(2.1)	58(61.1)
계	45(47.4)	7(7.4)	6(6.3)	15(15.8)	5(5.3)	7(7.4)	6(6.3)	4(4.2)	95(100.0)	

계 나타났고, 정주성 문항은 영구히 살겠다가 61 사례(64.2%)로 가장 많았다.

3. 조사대상 마을의 특성

1) 각 마을별 건축특성

각 마을별 건축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

명, 주소지, 건립연도,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가구전용면적, 주동배치, 수동수, 세대수, 현 거주세대, 마을 내 기타시설, 용도지역, 준공일자, 입주시기, 관리지회, 지회설립연도를 조사하였다.

2) 각 마을별 공유공간 실태

이웃간의 접촉과 원만한 관계를 유도하는 마을

내 공유공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마을별로 어떠한 공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마을별 공유공간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4. 이웃관계

1) 이웃관계

각 마을별 이웃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웃에 대한 만족도, 마을 내에서의 생활시간, 이웃주민의 위치, 이웃주민과의 만남 빈도, 이웃수, 내가 참여하는 행사 등을 조사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이웃에 대한 만족도는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 「불만이다」에서 3점 「만족한다」로 정의하였다. 보통이 52사례(55.3%)로, 만족이 37사례(29.4%)로 나타났으며 평균 2.34로 이웃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내에서의 생활시간을 보면 11~15시간이 44사례(46.3%)로 가장 높았고, 24시간이 27사례(28.4%) 순으로 평균 16.08시간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친하게 지내는 이웃과 만나는 횟수는 거의 매일 만난다가 58사례(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친하게 지내는 이웃주민(중복응답)은 같은 마을 내에 살고 있다가 총 응답 144사례 중에서 72사례(50.0%)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 이웃관계의 정도

이웃관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이웃>,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이웃>, <같이 시장을 가거나 외출을 함께 하는 이웃>,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이웃>,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이웃> 수를 알아보았다.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이웃의 경우는 이웃관계가 깊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이웃으로 갈수록 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이웃수의 평균은 29.07명이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이웃수의 평균은 17.54명, 같이 시장을 가거나 외출을 함께 하는 이웃수의 평균은 4.40명이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이웃수의 평균은 4.93명,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이웃수의 평균은 3.71로 나타나 이웃관계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해당 이웃수

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이웃의 경우 같은 마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수 만큼을 다 알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아산의 경우는 20명 초과가 23사례(28.4%)로 나타났고 거주세대 80세대를 거의 대부분 알고 지내고 있었다. 태백삼수동과 태백장성동의 경우도 11~15명을 알고 지내는 경우가 각각 5사례(6.2%), 4사례(4.9%)로 조사되었고, 광양의 경우도 20명 초과가 6사례(7.4%) 등으로 거주세대 대부분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는 의무노동 500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웃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이웃의 경우는 6~10명과 11~15명이 20사례(24.1%)로 조사되었다. 같이 시장을 가거나 외출을 함께 하는 이웃수는 6~10명이 15사례(22.1%), 2명이 13사례(19.1%), 4명이 10사례(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정도는 4명, 5명이 각각 11사례(14.9%), 2명, 3명, 6~10명이 각각 10사례(13.5%)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정도는 2명 16사례(22.2%), 3명 13사례(18.1%), 1명 4사례(13.9%)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4. 친하게 지내는 이웃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이웃위치	빈도(%)
같은 층	17(11.8)
아래·위층	23(16.0)
같은 동	25(17.4)
같은 마을 내	72(50.0)
마을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없다.	7(4.9)
계	144(100.0)

(중복응답)

3) 이웃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내 행사

이웃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의 경우는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에 참여한다가 72사례(9.9%)로 가장 많았고, 마을청소 및 환경미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71사례(9.8%),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가 66사례(9.1%),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65사례(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관리 및 하자 등 공동의 문제를 의논하거나 55사례(7.6%), 자주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50사례(6.9%)도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5. 이웃관계의 정도

		아산	태백		광양	경산	진주	의정부	군산	계
			삼수	장성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이웃	1명	-	-	-	-	-	-	1(1.2)	-	1(1.2)
	2명	-	-	-	-	1(1.2)	-	-	-	1(1.2)
	3명	1(1.2)	-	1(1.2)	1(1.2)	-	-	1(1.2)	-	4(4.9)
	5명	1(1.2)	-	-	2(2.5)	2(2.5)	-	-	1(1.2)	6(7.4)
	6~10명	6(7.4)	1(1.2)	1(1.2)	2(2.5)	-	1(1.2)	1(1.2)	-	12(14.8)
	11~15명	1(1.2)	5(6.2)	4(4.9)	1(1.2)	1(1.2)	4(4.9)	1(1.2)	3(3.7)	20(24.7)
	16~20명	4(4.9)	-	-	2(2.5)	-	-	2(2.5)	-	8(9.9)
	20명 초과	23(28.4)	-	-	6(7.4)	-	-	-	-	29(35.8)
	계	36(44.4)	6(7.4)	6(7.4)	14(17.3)	4(4.9)	5(6.2)	6(7.4)	4(4.9)	81(100.0)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이웃	1명	1(1.2)	-	-	-	-	-	1(1.2)	-	2(2.4)
	2명	-	-	-	-	-	-	1(1.2)	1(1.2)	2(2.4)
	3명	1(1.2)	1(1.2)	-	1(1.2)	1(1.2)	-	1(1.2)	-	5(6.0)
	4명	1(1.2)	1(1.2)	-	-	1(1.2)	-	-	-	3(3.6)
	5명	5(6.0)	-	1(1.2)	1(1.2)	-	-	1(1.2)	-	8(9.6)
	6~10명	9(10.8)	-	-	5(6.0)	2(2.4)	3(3.6)	1(1.2)	-	20(24.1)
	11~15명	3(3.6)	5(6.0)	5(6.0)	1(1.2)	1(1.2)	2(2.4)	-	3(3.6)	20(24.1)
	16~20명	4(4.8)	-	-	1(1.2)	-	-	1(1.2)	-	6(7.2)
	20명 초과	12(14.5)	-	-	5(6.0)	-	-	-	-	7(20.5)
계	36(43.4)	7(8.4)	6(7.2)	14(16.9)	5(6.0)	5(6.0)	6(7.2)	4(4.8)	83(100.0)	
같이 시장을 가거나 외출을 함께 하는 이웃	0명	1(1.5)	1(1.5)	1(1.5)	3(4.4)	-	-	-	-	6(8.8)
	1명	2(2.9)	1(1.5)	-	2(2.9)	1(1.5)	1(1.5)	1(1.5)	-	8(11.8)
	2명	4(5.9)	1(1.5)	-	1(1.5)	1(1.5)	1(1.5)	5(7.4)	-	13(19.1)
	3명	3(4.4)	2(2.9)	-	1(1.5)	1(1.5)	-	-	-	7(10.3)
	4명	2(2.9)	-	1(1.5)	4(5.9)	-	-	-	3(4.4)	10(14.7)
	5명	2(2.9)	-	1(1.5)	1(1.5)	1(1.5)	1(1.5)	-	-	6(8.8)
	6~10명	12(17.6)	-	1(1.5)	1(1.5)	-	1(1.5)	-	-	15(22.1)
	11~15명	1(1.5)	-	-	-	-	-	-	-	1(1.5)
	16~20명	2(2.9)	-	-	-	-	-	-	-	2(2.9)
계	29(42.6)	5(7.4)	4(5.9)	13(19.1)	4(5.9)	4(5.9)	6(8.8)	3(4.4)	68(100.0)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이웃	0명	1(1.4)	1(1.4)	-	2(2.7)	1(1.4)	-	-	1(1.4)	6(8.1)
	1명	2(2.7)	2(2.7)	-	1(1.4)	-	-	-	2(2.7)	7(9.5)
	2명	4(5.4)	1(1.4)	-	1(1.4)	-	1(1.4)	3(4.1)	-	10(13.5)
	3명	3(4.1)	-	-	3(4.1)	1(1.4)	1(1.4)	2(2.7)	-	10(13.5)
	4명	3(4.1)	-	1(1.4)	5(6.8)	2(2.7)	-	-	-	11(14.9)
	5명	6(8.1)	-	1(1.4)	1(1.4)	1(1.4)	1(1.4)	-	1(1.4)	11(14.9)
	6~10명	8(10.8)	-	-	1(1.4)	-	-	1(1.4)	-	10(13.5)
	11~15명	2(2.7)	1(1.4)	4(5.4)	-	-	1(1.4)	-	-	8(10.8)
	16~20명	1(1.4)	-	-	-	-	-	-	-	1(1.4)
계	30(40.5)	5(6.8)	6(8.1)	14(18.9)	5(6.8)	4(5.4)	6(8.1)	4(5.4)	74(100)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이웃	0명	1(1.4)	2(2.8)	-	3(4.2)	-	-	1(1.4)	-	7(9.7)
	1명	4(5.6)	2(2.8)	-	-	-	1(1.4)	2(2.8)	1(1.4)	10(13.9)
	2명	9(12.5)	-	-	1(1.4)	2(2.8)	1(1.4)	3(4.2)	-	16(22.2)
	3명	6(8.3)	1(1.4)	-	4(5.6)	2(2.8)	-	-	-	13(18.1)
	4명	2(2.8)	-	2(2.8)	3(4.2)	-	1(1.4)	-	2(2.8)	10(13.9)
	5명	6(8.3)	-	-	2(2.8)	-	-	-	1(1.4)	9(12.5)
	6~10명	2(2.8)	-	2(2.8)	-	-	1(1.4)	-	-	5(6.9)
	11~15명	-	1(1.4)	-	-	-	1(1.4)	-	-	2(2.8)
	계	30(41.7)	6(8.3)	4(5.6)	13(18.1)	4(5.6)	5(6.9)	6(8.3)	4(5.6)	72(100)

표 6. 이웃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내 행사

	아산	태백		광양	경산	진주	의정부	군산	계 -
		삼수	장성						
자원봉사활동참여	18	4	1	4	-	2	3	1	32(4.4)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줌	11	4	4	2	3	4	3	2	33(4.5)
자주오가며 이야기 나눔	20	5	6	4	4	5	3	3	50(6.9)
집·아이 돌보아줌	12	2	5	2	2	2	2	-	27(3.7)
교양,취미,종교모임 함께	16	2	3	6	3	6	2	-	38(5.2)
각종강좌,교육활동 함께	6	6	3	2	-	2	-	1	20(2.8)
김장 등 집안일 함께	20	3	3	4	2	4	3	3	42(5.8)
마을청소·꾸미기 함께	37	6	6	5	5	5	3	4	71(9.8)
생활용품·가사도구빌림	15	5	6	5	4	4	3	3	45(6.2)
경조사 참여·도움	29	6	6	12	3	4	2	3	65(9.0)
쓰레기/재활용/분리수거	36	5	6	9	5	4	4	3	72(9.9)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	16	3	6	7	3	3	2	3	43(5.9)
음식 나눠먹기/식사초대	25	6	6	13	4	5	4	3	66(9.1)
물건공동구입/시장함께	13	3	3	5	2	4	2	2	34(4.7)
관리/하자/공동문제외논	18	5	6	9	5	5	4	3	55(7.6)
생활정보 교환	14	3	5	2	2	4	1	1	32(4.4)
기타	2	-	-	-	1	-	-	-	3(0.4)

(중복응답)

4) 이웃관계에 도움이 되는 공간 요구

이웃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공간 요구에서는 부녀자들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봉사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심점이 되는 「부녀복지공간」이 21사례(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족한 청소년들의 독서실기능을 보완해 도서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동도서실/독서실」이 15사례(6.4%)로 나타났다. 또한 마을 안에 인공폭포, 연못, 분수대, 화단, 수목 등으로 이루어진 환경친화적인 「공원」에 대한 요구와 광장, 벤치, 정자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휴게시설」에 대한 요구, 거주자들간 방문객과의 만남의 장소 또는 함께 대화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소파와 탁자, 차종류가 마련된 「공동휴게실」도 각각 15사례(6.4%)로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이 주민행사 등을 실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야외체육시설」도 13사례(5.6%)로 높게 나타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표 7. 이웃관계에 도움이 되는 공간요구

공간명	빈도(%)
공동창고	10(4.3)
세대별 보관창고	12(5.1)
유모차/자전거 보관소	10(4.3)
주차시설	3(1.3)
공동식당	4(1.7)
공동세탁실 및 건조실	1(0.4)
소규모 작업장	7(3.0)
다목적 행사실	9(3.8)
노인복지회관	9(3.8)
부녀복지공간	21(9.0)
업무공간	3(1.3)
공동놀이방/공부방	14(6.0)
실내놀이시설	8(3.4)
공동도서실/독서실	15(6.4)
탁아시설	12(5.1)
청소년 모임공간	4(1.7)
공원	15(6.4)
외부휴게시설	15(6.4)
회합장소	7(3.0)
야외 체육시설	13(5.6)
산책로 및 조깅코스	11(4.7)
공동 휴게실	15(6.4)
정보게시판 및 전시장	13(5.6)
어린이놀이터	3(1.3)
계 (중복응답)	

IV. 결론 및 제언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그들의 생활문화를 유지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하성규, 2000). 해비타트 주택 입주자는 같은 마을 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웃들과 알고 지내며,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었다. 이웃주민과 교류를 하기에 어려운 이유는 직장생활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이웃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내 행사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수거, 마을청소·환경미화, 음식물 나누어먹기·식사초대,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한다 순이었다. 이웃관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역시 직장생활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가 가장 많았다. 이웃관계에 도움이 되는 공간요구에서는 부너복지공간, 공동도서실/독서실, 공원, 외부휴게시설, 공동휴게실, 야외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공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해비타트 주택도 규모와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좁은 단위세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구를 공유공간에서 해결해준다(하성규, 2000)고 하였으므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공유공간은 입주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입주자의 이웃관계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1. National Affairs(2001, 8,22)
; 해비타트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고
2. 김선중·한주연(2002). 해비타트 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한국주거학회지 제13권 제3호 pp.71~84
3. 이연숙(1995).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4. 하성규 외(2000).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 저소득층 관점에서 본 공유공간의 유용성. 연세대학교 출판부
- 5. 한주연·김선중(2001). 해비타트 주택에 대한 거주자의 의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제12권 pp.105~112